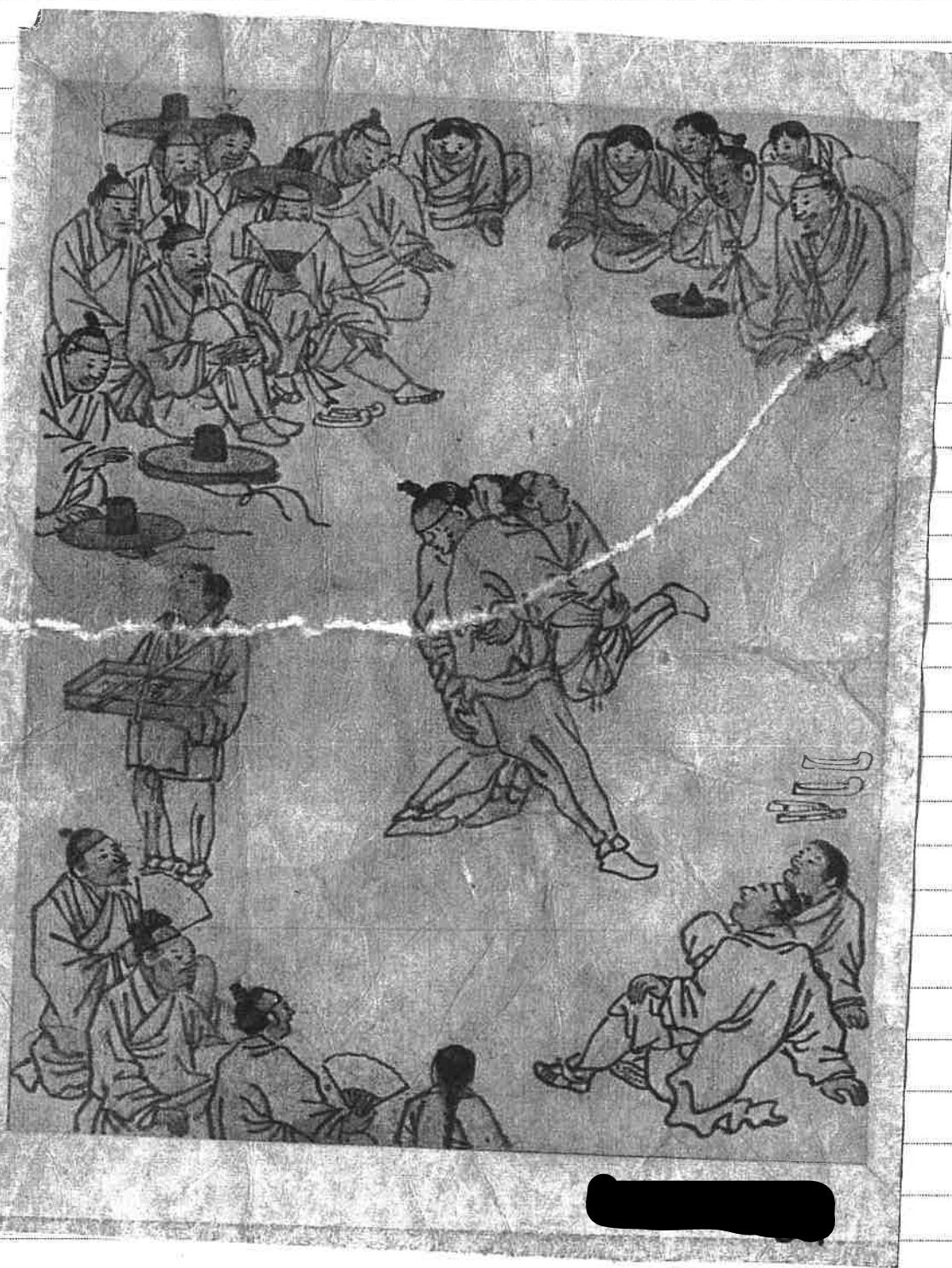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REDACTED]	성명	[REDACTED]
체험학습일	2018년 10월 17일		
체험학습장소(코스)	국립전주 박물관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국립전주박물관을 방문했다. 먼저 어린이 박물관으로 가서 강의실에 들어갔다. 강의실에는 한 테이블에 6개의 회색빛 칸판이 놓여져 있어 무엇을 할지 궁금증이 생겼다. 아예 학교에서 듣기로는 유물보존체험을 한다고 들어서 진짜로 유물보존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을지 기대감도 들었다.</p> <p>강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검사지를 나눠주었다. 그 검사지는 흥분도 진로직업검사의 6개 유형 중 박물관 큐레이터에 해당하는 4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검사항목을 재구성한 검사지라고 하였다. 탐구형은 보존과학, 예술형은 전시기획, 사회형은 교육, 관습형은 유물관리와 관련있는 직성유형이다. 나는 그 중에서 관습형으로 유물관리에 제일 적합하다고 나왔다. 마침 오늘 하는 체험도 유물관리에 연관된 체험이라 내다. 이 직업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 들었다.</p> <p>직업·진로교육을 하기 전에 시간이 되어서 먼저 보존과학실에 갔다. 보존과학실은 전장에 있는 박물관 중에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 평안 개인적으로 박물관에 방문할 때는 들어갈 수 없었던 관제사 외 출입지를 넘어 보존과학실로 향했다. 보존과학실의 첫인상은 실험실이었다. 갖가지 약품들과 해병, 각종의 미세한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책상에는 옛날 전류용품들로 보이는 유물들이 배구에 놓여져 있는 것이 '여기가 진짜 보존과학실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흰 실험복을 입은 직원분께서 보존과학실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주었다. 보존과학실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적으로 도장품을 조사하고 훼손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복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현재 보존과학실에서는 현재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유물들을 복원하고 있다고 하였다.</p> <p>유물들은 탈염수조에 따라 약 8~20주 정도 걸린다고 하시며 '생각보다 유물보존이 힘들고 오래걸리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존과학실을 관람한 뒤에는 대강의실로 들어가 방문 진로·직업교육을 받았다. 박물관의 정의와 하는 일, 그리고 큐레이터의 임무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셔서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도어 유물관리 체험을 하였다. 강동도의 '시공'그림을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다시 붙이는 체험하였는데, 아주 쉽게도 미끈하게 도시는 않아 아쉬웠다.</p> <p>이번 진로직업체험활동을 통하여 박물관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큐레이터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었다.</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	성명	●●●●●●
체험학습일	2018년 10월 17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청소년금융센터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10.10. 수요일 저는 전주 서부내가지에 있는 청소년금융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센터에 들어서고, 간단히 OT를 마친 후 저희 조는 경계를 이용한(?)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에 앞서 간략히 금융 상품의 종류(펀드, 주식, 채권 등)를 소개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보험도 '자급 조건이 되면 돈을 받기 때문에' 위 분류에 넣은 의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p> <p>> 보드게임 판에는 펀드, 주식형 펀드 등 여러 종류의 금융 상품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드게임을 진행하면서 초반에는 계속 이익이었는데 마지막 서게 턴에서 다이내믹스(-)만 나와서 6명중 5등으로 게임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통해 투자는, 특히 주식은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는 (-)나온 것은 2개를 제외하면 주식 손상이었음)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펀드 매니저나 증권사의 매니저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올지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p> <p>보드게임을 마친 후 바로 여러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에는 지폐계수기(돈세는 기계), 동전 분류기, 분류된 동전을 묶어주는 기계와 수표 인쇄하는 기계(기계 이름이 기억 안남..)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인쇄하는 것은 직접 보고 동전 분류 과정과 묶어주는 과정을 직접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外)화의 종류(USD, 円, 磅 등)와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피해(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와 해결책을 알 수 있는 체험과, 위조지폐와 진짜 지폐의 차이를 구별해내는 게임도 했습니다.</p> <p>이 체험으로 지폐계수기에 위조지폐 구별 기능이 있는 것을 알았고, 사용된 수표는 분쇄처리하지 않고 규율 도장을 찍은 채로 보관하고, 동전을 묶을 때 10원, 50원 100원은 50개씩 묶는데 500원짜리는 4개씩 묶으며, 한국 지폐는 위조 방지를 위한 부분이 찾을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여러 곳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p> <p>마지막 체험에서는 내가 은행원이 되어 고객을 응대하는 것과 금고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고객 응대 방법(주먹 약하게 주고 라켓한 자세에서 최대한 미소지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어서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을 배우고 직접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또 금고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보기도 했습니다.</p> <p>이 체험들로 은행원도 힘든 직종이라고 생각했고(제가 사랑받는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 지금까지 궁금하던 통장 만드는 과정도 알고, 한번 사용해보고, 금고가 어중중</p>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부르다불라
비슷하게 생긴

모르는 것을
찾아보고

조금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체험을 완전히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급식 후 귀가하여 체험했던 것
들을 되새기고, 많은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고, 생각하니
이번 체험으로 운행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좋았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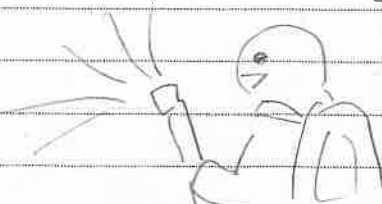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REDACTED]	성명	[REDACTED]
체험학습일	2018년 10월 17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울산광역시 우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2학년이후로 가는 진로직업 체험활동이다. 너무 일찍 5월달에 현장체험 다녀온지라 참된 배스만타도 즐거워했다. 차로 15~20분 거리였지만 게임, 이야기 등을 하면서가니 가는시간이 2분처럼 짧게 느껴졌다. 평소에드 부모님차를 타면 가끔씩 우석대학교 주변을 지나곤 했는데 이렇게 학교 속으로 들어가본것은 처음이었다. 확실히 정학교 외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고 크고 고풍스러웠다.</p> <p>버스에서내려 농구장에 우리반과 8반이 모였다. 우리는 10시부터 체험이 시작되는데 1차 1시간, 2차 1시간 해서 12시에 진로 체험이 끝나고했다. 나는 1차 체험으로 작업치료학과에 갔다. 강의와 체험을 듣는곳은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고있는 건물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강의실로 유입되었다. 10시가되자 교수가오셔서 작업치료학과가 무엇인지, 관련직업을 설명해주셨다. 내가 생각했던 작업치료학과는 간병인 같은 직업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관련된 직업이 굉장히 많았다. 예를들어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업이 있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에 오면 좋은점을 알려주셨다. 사실 원래우석대학교에대한 편견이있었다 "그냥 사립학교겠지" 했지만 이번에 진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편견이조금 사라졌다. 강의를 듣고 우리는 체험을했는데 만능성 테스트 등 여러가지 테스트도하고 장애인 들을 위한 물건과 장애인화장실 등을 구경하였다.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다 또 작업치료사는 일반인사 간호사와 다르게 재형같은것은 하지않는다고했다. 의사들은 잔제장치등으로 일하는 반면 작업치료사들은 근육을 바탕으로 수습과 공복을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작업치료 체험을 끝내고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신 인솔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하였다. 학교에대한장점과 우리가모르고있던 대학교 등등을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농구장에 다시모여 이번엔 항공 서비스 학과 에 갔다 가자마자 승무원들이 입는 유니폼과 스카프등을 하고 테스트 비행기와같은구조의 좌석으로 마치 비행기를 탄 느낌이었다. 뛰기왔던 친구는 제복도드 수학여행 가는것 같라며 신나했다. 이번체험은 교수가 아닌 재학생 이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해주셨다. 항공라인장점, 하는일 등에 열심히 알려주었고 영상을보고 퀴즈를 내셨는데 내가 맞추어서 교바도 선물로 받았다.</p> <p>3개의 영상을 보았는데 그중 인상깊게 본 영상은 승무원들이 비행후 다른나라에서 휴식을하는 '레이아웃' 에 대한 영상이었다. 직업이기도 하지만 버려나라들</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REDACTED]

여행할수 있다는것이 부쩍 신기했다. 또 비행기 음료서비스처럼 카트를 끌고, 음료수도 나눠주었다. 그리고 승무원 머리 체험할수있게 해주었는데 드라이기 몇번에 스폰지 머리서너 친구들 머리가 변하였다. 그렇게 항공 서비스학과 체험도 끝났다. 혼자 잔여 체험을 했다면 지루했을텐데 찬란해서 더 즐겁고 유익했다. 새로운 학과체험을 하게되어 뜻깊은 하루였다.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REDACTED]	성명	[REDACTED]
체험학습일	2018년 10월 17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익산 산림 항공본부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진로 체험으로 익산 산림 항공본부에 갔다. 나는 항공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 던게 아니라 큰 기대 없이 갔다. 딱 들어갔더니 넓은 공간이 보였다. 헬기 때문에 그러지 딱 트인 넓은 공간이 있었다 거기서 슬래잡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리 고 그 넓은 공간 한 가운데에 헬기가 하나 있었다. 그 앞에서 헬기에 대한 설 명은 들었는데 곁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의 사람을 태운다는 것이 신기했 다 후에 직접 헬기 안에 들어가 내부는 구경하니 더 신기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태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될 거 같았다. 헬기를 구경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조종석이다 조종석에는 엄청 많은 버튼이 있었다 심 지어 다 영어로 되어있어 뭐가 무슨 버튼인지를 알 수 없었다 이 많은 버튼들을 다 직접 외우고 헬기를 조종하시는 조종사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p> <p>이 외에도 여러가지 활동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붉은 끝 때 필요한 물이 가득 든 가방을 메고 가방과 연결된 호스로 물을 쏘는 것이었다. 물이 생각보다 곧고 세게 나 가 놀랐다. 그리고 그 무거운 가방을 직접 메고 보질을 진압하시는 소방관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p> <p>레स्क유티트 체험도 있었다 산복이 났을 때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 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한 장비로 그 장비 위에 두 사람이 앉아 안전벨트 를 착용하면 헬기에서 끌어 올리는 (?) 것이다 레स्क유티트에는 발판이 없어 굉장 히 무서워보였다 실제로 산복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발 밑의 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이나지 않도록 조심해 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p> <p>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실내로 들어가 화재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을 들으니 정말 화재가 우리 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쉽게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화재나 재난등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구조하고 돕는 분들께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레स्क유티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REDACTED]	성명	[REDACTED]
체험학습일	2018년 10월 17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이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작업치료 학과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학과였다. 그래서 처음 이 학과의 이름을 들었을 때, 물리 치료나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는 방법을 배우는 곳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직접 설명을 들어보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에 이 직업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 실제로 실습을 하는 곳에서 온 기구들은 이 체험을 더욱 재미있게 해주었다.</p>			
<p>두 번째인 간호학과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지만 앞서 작업치료학과 의 실습기구보다 더 사실적이고 신기한 모습의 기구들 덕분에 크게 재미가 없지는 않았다. 또 간호학과에서 실제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어떻게 이 학과에 진학할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그 사람들이 유럽기도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직접 찾아보며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이번 체험은 그 체험학습장소가 나의 관심분야가 아니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잘 모르던 직업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된 것에 어느정도 만족을 하고 있고 위에서 처럼 자신의 목표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에서 매우 만족감을 체험 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 첫 번째로 학과 체험 과정에서의 설명이 그 직업에 관해서 소개하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학과와 학교의 장점만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진로 체험을 온 것이 아니라 학과나 학교 홍보관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짧은 오전 시간동안 두 개의 학과를 모두 보기가 벅찬는지 모든 체험과 활동이 그저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여기에 설명과 소개 역시 중간 중간 생략되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빼면 나름 재미있던 체험이라고 생각한다.</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8년 10월 17일		
체험학습장소(코스)	밀롱 커피숍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이번에 전로체형으로 바리스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체험장소는 송천동에 있는 밀롱 커피숍이었는데, 가게가 되게 넓고 바리스타 따뜻한 느낌이 들어 예뻐다.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커피를 만드는 곳과 전영장의 커피내리는 도구들이 보였다. 최근까지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었고 커피를 좋아하다보니 기대가 많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커피를 내려보기 전에 카페 바리스타이자 사장님이신 분의 인터뷰를 하였다. 사장님은 대학생때까지 건축에 관심이 있었지만 전로체형 ^{비례}가 불특정했고, 테마창 등게 된 바리스타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고 직장에 가야 전로를 바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음료로 다른 사람을 미소짓게 할수 있다는 것이 바리스타의 가장 좋은 점이라 과복성이라고 하였다. 나는 비록 대학생때까지만 자신의 직장을 찾고 행복하게 일하고 계시는 사장님, 부럽다고 생각했다. 본격적으로 커피축출 체험을 하기 전에는 바리스타 분께서 수종양과 시범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커피파라는 드리퍼로 핸드드립을 할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두는 에티오피아였는데, 기계에서 많이 보았던 이름이라 반가웠다. 핸드드립을 할 때는 드리퍼에 거름종이를 넣고 한 간 원두를 부은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 드리퍼 밑의 국명으로 커피를 축출한다고 하였다. 이때 원두가 눌리려 압도적 양으로 분출되어 간 원두를 툭툭하게 피고, 뜨거운 물도 알량하게 부어야 하고, 물을 붓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원두에 전체적으로 물을 적시고, 이후부터는 500원 크기로 온돌기를 돌려가며 커피를 내려간다고 하였다. 이때 물이 다 빠지려 않게 해야하고, 거름에서부터 바깥으로 돌리며 물을 부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범을 해보았는데, 평소와 많이보던 아메리카노 보다는 훨씬 시고 쓰다. 그 후에는 직접 핸드드립을 해보았는데, 보기보다 물을 붓는 것이 어려웠지만 보기만 하던 것을 해보니 아주 재미있고 민생 같았다. 내가 내린 커피를 중이랑이 묻겨 담아 서로 맛을 봤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목속 조금씩 맛이 다르게 느껴 신기했다. 바리스타 전로체형은 이번이 두번째였는데, 민원이 너무 많고 바리스타 ^{바리스타} 시간이 짧아 할수있는 체험이 핸드드립 방식이 많이 아쉬웠다. 그래도 평소와 좋아하는 커피와 관심이 있었었던 직업에 대해 배우게 되니 굉장히 더 잘되고 몇 배로 더 재미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라떼아트나 전과 카페에서 파는 메뉴를 만들어보고 싶다. 커피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번 전로체형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p>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8년 10월 17일		
체험학습장소(코스)	교실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오늘 나는 교실에서 백제예술대학교에서 온 리복원 교수한테 모델 강의를 들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요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신에 유튜브 페이지를 트윅터등 영상 매체가 발달하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앉을 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먼저 각 골게 피고 바르게 의자에 고정하는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깨를 키우기 위해서는 농구, 줄넘기 등 신체의 성장판을 늘려주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만약 신체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팔꿈치, 목관절, 허벅지 등이 될수 있고 불편이 뒤따라서 다리의 길이가 많이 짧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나는 요즘 모델이 되려면 신체적 조건이 중요한게 아니라 올바른 자세와 자신의 개성과 표현력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는 모델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다 듣고 나서 난 후에 직접 바른 자세로 서보고 걸어보았다. 먼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배에 힘을 주고 두 다리 끝을 벌이고 골개를 골게 들어올린 상태로 허리 끝까지 앞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르게 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에는 우리는 바르게 선 상태로 걸어보았는데 내가 우리반 학생들 모두 평가해보았는데 모두 자세가 많이 좋게 나왔는데 이소희, 손아연, 김재영등 일부 여학생들과 정하나, 양서진, 이우현, 박리안, 백지성, 이규민등 일부 남학생들이 내가 볼 때 자세가 가장 좋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몇번씩 자세를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표정 하고도 다시 읽어보았는데 확실히 저금 걸었음
대보다 모두 자세가 괜찮았다고 보여진다.
나는 이 회hem을 하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와 다양한 표현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모델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다면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연습하고 싶고 다시
생각해 본다. 이걸 들은 부모는 비록 화를 내지만
결국은 내가 수련 기간을 여러 학교 생활에서
돈들이고 싶고 다음 학년에도 이 분야에
향속 있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8년 10월 17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시각디자인 - 학교, 과학관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시각디자인 수업을 받았다. 예전처럼 전로 체험을 했던 하얀 자유학기제 때 미투로 처음인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다.</p> <p>처음에 예술에 대한 대략적 설명을 해주셨다. 평소 시선에 배운 것들이 나와 복습이 되고 다 생각이 나서 야간 복습했다. 디자인 예제중에 가장 생생하게 스토리에 맞게 만들어진 디자인이, 일상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디자인들이 있었다. 나는 디자인이 그냥 예쁘고 멋스러운거라고 있는줄 알았는데 개념에 잘맞고 유용하게 만들어진 디자인들을 보면 훨씬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중 내가 제일 신기해했던 작품은 '사우나'라는 이름의 제품들이 사우나-각이라는 컨셉이 맞춰 병이 잘라진것처럼 되어 있는 거였다. 너무 기발하였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올라갈수 있는 계단이다. 계단이 굴레굴레 있고 그 중간에 오르막 길이 있어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올라갈수 있는 계단이었다. 이 디자인을 보고 나에게 과학처럼 다 할수 있는 모든것들이 다들 신기하게 생각할수도 있었던 것같은 생각이 드니 내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었다. 또, 손이 힘이없는 사람이나, 무릎이에도 유용한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디자인이다. 이를 손잡이 ^{지팡이} 손잡이처럼 전원을 붙을때 힘이 들지 않는다. 잘 못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디자인인 제품은 보고 놀랐다.</p> <p>선생님이 가장 말씀하시는 것은 것이 과학만큼이라고 하셨다. 나는 내가 과학만큼은 딱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디자인을 보며 내가 모든것이 과학만큼이라고 느끼는것 같았다. 수업을 들으며 나도 작위 편하게처럼 창의적이고, 공 과학만큼 많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편하게이 조립스러웠다.</p> <p>두번째 수업은 포장하기였다. 선생님께서 셔츠로양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약간의 핏갈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포장하는 방법을 알고 계속 볼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오래만나기 학교에서 미대를 하는것 같아 신났다.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잘 만든 것 보며 엄청 부끄럽다. 다음에 선물 포장할때 이 방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p> <p>거의 1분안에 직접 전로 체험을 해서 너무 신났다. 다양하게 전로 체험을 해내 내가 좋아하고 구경하는것을 참을 수 있어 좋은것 같다.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다양한} 행사들 참여하여 다양하게 전로 체험을 해보게된다.</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REDACTED]	성명	[REDACTED]
체험학습일	2018년 10월 17일		
체험학습장소(코스)	목공체험, 실내체험관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나는 10월 14일에 진로체험을 하러 실내체험관을 갔다. 나는 이미 그대도 꿈을 정해놓은 상황이라서 딱히 관심도 없이 그냥 놀러간 것이었다.</p> <p>하지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되는 꿈을 이루지 못하여도 나의 창의력만 있으면 돈으로 잘 벌고 더 잘 성공할 수 있을 거 같았다.</p> <p>나는 그 선생님 목공예 선생님의 말씀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평범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도라이가 바뀌는 거라고 한 말이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 했어도 나는 도라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발명품을 만들어서 나는 성공 할 것이다. 다시 진로 체험을 한 때로 돌아가자면 그 선생님은 목공예 중에 소목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였다. 나는 그분한테 배움을 받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대로 소목을 했다.</p> <p>나는 칸막이 연필꽂이를 만들었는데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같았는데 페인드로 칠하고 또 못도 박고 그랬는데 생각 보다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친구 진환이가 삼각대처럼 칸고침을 시켜주어서 깔끔하게 너무 잘 만들어서 되게 관 함밖 던지 같았다.</p> <p>그래서 집에서 책상에 두고 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공예 선생님이 성인이 되면 제자로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살짝 든든 한거 같아서 좋았다.</p> <p>내 친구들도 그러고 다 진로 체험이 싫다고 재미없었다고 다 그러는데 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미리 꿈을 정 해 놓았는데도 살짝 해방되고 굉장히 좋은 경험과 프로그램을 했다. 한번더 아니 두세 번더 하고 싶은 진로 체험이었다. 그리고 난지름 골지도 아니고 삼위권도 아니지만 골지가 인생은 성공 한다는 말이 나도 그렇고 친구들 한테 좋은 말이 되었을 거 같았다.</p> <p>그리고 다른 체험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였다.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만 해야한다는 막막 함에 갇혀 있어서 되게 불안하고 걱정 되었는데 이 진로직업 체험을 하고 살짝 마음이 화분해 진게 좋다. 이번 진로 체험 활동 보고서를 쓰면서 완전 특별하고 의미있는 중학교의 마지막 진로 체험이 된 거 같아서 진로체험을 긴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았다.</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8년 10월 17일		
체험학습장소(코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 한국 어제 아침에 한국에 있는 KIST 에 견학을 다녀왔다. 그곳에서는 여러 복합소재와 관련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하는 곳이다. 처음에는 들어가는 데 정원이 있어서 연구실들까지 않고 돌아보았다. 딱딱한 분위기를 안았는데 모두 다 친절하게 대응했다. 먼저 KIST에서 만든 영상을 보고 복합소재의 뜻을 알게 되고 이 평면구조의 박사님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하는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 미래희망직종이 이 분야에 관학에 대해 더 알게 되어서 좋다. 그리고 이어서 박사님들이 강의준 두었는데 그 불기(플라스틱) 에 대해 소개되었는데, 여러 플라스틱 종류가 있다는 것이 놀랐다. 비닐만 뜰 때 plastic 는 쓰고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쓰고, 스티로폼 만들 때도 쓰여! 옛날에는 인공^{인공} 유리였어서 깨지면 치명적이었는데 플라스틱으로 바뀌면 더 안전하고 쉽게 안 부서져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다. 문제를 맞으면 고배를 치게 더 참여^{참여}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을 구경했는데 최대 50억 인 장비를 봐서 신기했다. 정말 좋았다. </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